

최진영 「일요일」의 개작 양상과 의미 연구

최예슬*

요약

본 연구는 최진영의 단편소설 「일요일」이 계간지 『자음과모음』에 발표된 후, 단행본 『일주일』에 재수록되며 거친 개작 양상과 그 의미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최진영은 개작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 안팎의 청소년들이 겪는 삶의 문제를 다각도에서 살피고, 그 문제의 원인으로서는 현실의 사회경제적 구조가 갖는 병폐에 관한 비판의식을 예각적으로 드러낸다.

본 연구에서 개작 양상의 분석을 토대로 도출한 작품의 서사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내면화된 폭력과 개인화된 죄책감의 강요, 둘째는 계급적 분화에 따른 정서적 균열의 부각, 셋째는 인간 소외와 실존적 운기의 대치이다. 단행본에서는, 타자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나’에게 폭력을 내면화시키고 왜곡된 죄책감을 강요하는 기제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또한, ‘나’, ‘민주’, ‘도우’의 순수한 우정이 사회경제적 격차에 의해 균열을 겪고 인물 간 정서적 거리감이 커지는 양상이 섬세하게 그려진다. 나아가 ‘나’와 ‘도우’가 겪는 소외의 문제와 그 고통 속에서도 두 사람이 놓지 않는 실존적 운기를 대치시켜 서사의 긴장감을 마지막 장면에 응축시킨다.

이처럼 「일요일」의 개작 양상과 그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는 개작을 통해 한층 높아진 작품의 서사적 완성도를 규명하고, 청소년 문학으로서 이 작품이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을 밝힌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최진영, 일요일, 청소년, 노동, 개작

* 경기과학고등학교 교사

목차

1. 들어가며
2. 내면화된 폭력과 개인화된 죄책감의 강요
3. 계급적 분화에 따른 정서적 균열의 부각
4. 인간 소외와 실존적 온기의 대치
5. 나가며

1. 들어가며

‘텍스트 힙(text hip)’이라는 신조어와 함께 근래에 일어난 문학계의 역주행 신드롬을 떠올릴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작가의 작품이 있다. 바로 최진영의 『구의 증명』이다. 발간 당시에는 대중적인 호응을 얻지 못했지만, 8년 만에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15만 부가 팔려 나갔다.¹⁾ 서점가의 데이터를 통해 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역주행 신드롬의 동력은 1020 세대에게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은 2019년과 2020년, 20대 사이에서의 입소문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10대 사이에 가속화된 입소문에 힘입어 역주행 가도를 본격적으로 달렸다.²⁾

“한강 작가를 제외하고 ‘10대 이하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은 책’³⁾으로 손꼽히는 『구의 증명』에는 ‘청소년인 주인공들의 사랑과 성장에 관한 이야기’, 그 서사에 대한 ‘청소년 독자의 전폭적인 애정과 지지’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 작품의 인기가 이처럼 ‘청소년의 이야기’와 ‘청소년 독자’에

1) 유슬기, 「저도 제가 다음에 쓸 이야기가 궁금해요 작가 최진영 ①」, 『툼클래스』, 조선뉴스프레스, 2025.08., 147면.

2) 황지윤, 「모순부터 ‘급류’까지… 1020 덕에 문학 역주행」, 『조선일보』, 2025.01.17.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5/01/17/3P4NNKMNJFGFXOILBHRPQLDX2M/)

3) 유청희, 「“이런 슬픈 책은 그만 써…추천합니다” 출판 시장 ‘급류’ 바꾼 10·20세대」, 『독서신문』, 2025.02.13. (<https://www.reader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136>)

근간을 두고 있음을 주목하고, 청소년 독자에게 공명할 수 있는 최진영의 또 다른 청소년 이야기, 「일요일」을 조명하고자 한다.

「일요일」은 청소년 대상의 문학교육을 실천하는 국어 교사들 사이에서 ‘노동과 일상’에 관한 서사를 다루는 좋은 작품으로 알려진 바 있다.⁴⁾ 이 작품이 실제로 문학교육 현장에서 청소년 독자와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은, 작품에 담긴 ‘청소년의 노동과 일상에 관한 문제의식’을 규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중요한 동기가 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 독자가 실제로 대면하는 텍스트의 의미망을 온전히 해명하는 작업을 선행함으로써, 본 연구의 후속 연구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요일」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가 보다 구체적인 근거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문학 비평의 장에서는 최진영의 『팽이』, 『당신 옆을 스쳐간 그 소녀의 이름은』, 『끝나지 않는 노래』, 『내가 되는 꿈』 등을 중심으로 “가족의 부재를 통한 자아 찾기와 성장 서사”⁵⁾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한편, 학계에서는 최진영의 대중적 인지도에 비해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다. 논의 대상이 된 작품들도 『해가 지는 곳으로』⁶⁾와 『구의 증명』⁷⁾으로 국한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중 청소년이라는 개념의 안전망에서

4) 최진영의 「일요일」은 전국국어교사모임에서 출간한 청소년 필독 문학 작품 해설서 ‘노동과 일상’편에 첫 작품으로 소개되어 있다.(전국국어교사모임, 『세 가지 열쇠말로 여는 문학 이야기 4』, 해냄에듀, 2025. 참조.)

5) 서신화, 「2000년대 소설에 나타난 종말론적 세계 인식과 재난 서사: 편혜영과 최진영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3, 16면. 참조.

6) 고봉준, 「재난의 생명 정치와 연대의 (불)가능성 - 2000년대 한국소설에 나타난 팬데믹 질병과 ‘종말’의 감각」, 『한국문예비평연구』(72),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21; 이형영, 「최진영 『해가 지는 곳으로』 공간성 연구 - 한국형 포스트-아포칼립스로서의 특성을 중심으로 -」, 『문화와융합』 44(10), 인문사회예술융합학회, 2022; 김영삼, 「재난서사와 퇴행하는 공동체 - 박서련, 김유담, 최진영의 소설을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24(3),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3; 서신화, 앞의 글. 참조.

7) 김혜선, 「생명권력에 나타난 ‘돌봄’의 정치학 - 2000년대 이후 소설을 중심으로 -」, 『우리말글』 73, 우리말글학회, 2017; 김미현, 「21세기 한국소설에 나타난 감정 윤리의 동학 - 긍정의 정치학을 중심으로 -」, 『우리말글』 82, 우리말글학회, 2019; 이선우, 「문학서 ‘역주행’

밀려난 청소년 노동자의 삶을 논한 이하은의 연구를 주목한다.

이하은은 제도 바깥의 청소년인 ‘구’와 ‘담’의 삶 속에서 문제의식을 발견하고 『구의 증명』이 ‘인간다운 인간’,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가에 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소설임을 밝힌다. 본 연구 또한 그 문제의식을 계승하여, 최진영이 제도 바깥으로 밀려난 또 다른 청소년으로 서사화한 ‘나의 삶을 통해 인간성과 인간다운 삶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처럼 두 작품은 최진영의 작품 세계 안에서, 제도 바깥으로 밀려난 청소년들의 삶과 폭력적인 자본 중심의 사회 구조 속에 그들이 마주하는 비극을 그려낸다는 점에서 하나의 유형으로 묶일 수 있다.

그러나 『구의 증명』에서는 ‘구’와 ‘담’이 유년부터 제도 바깥으로 밀려나 같은 처지에 있던 존재들로 그려지고, 이들의 구원자적 관계성과 사랑이 자본 세계의 권력에 저항하는 서사가 작품을 구성하는 반면, 『일요일』에서는 ‘나’, ‘민주’, ‘도우’가 처음에는 제도권 안에 함께 머물러 있는 듯 보이지만 계급적 스펙트럼상으로는 철저히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한 존재들로 그려진다. 그로 인해 민주, 도우와 달리, 제도 안에 있으면서도 제도 바깥으로 밀려나는 ‘나’의 모순적 상황이 가시화되고, 이들의 우정이 자본주의 사회 구조가 낳은 위계 앞에 균열을 겪는 서사가 작품을 구성한다.

나아가, 최진영은 한 차례 개작을 통해 ‘도우’의 서사적 비중을 확장하여 『구의 증명』이 초점화한 제도 바깥의 청소년 문제뿐만 아니라 안(內)의 청소년 문제까지도 균형 있게 다루며 작품 완성도를 높이는 데 성공한다. ‘학교’라는 사회적 안전망 내에서 교육받는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안’의 청소년도, 인간성과 인간다운 삶의 상실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료화하며 한국 사회가 앓고 있는 병폐를 더욱 짙게 드러낸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지녔음에도 그동안

미디어셀러 분석 - 구의 증명』과 『모순』을 중심으로」, 『픽션과 논픽션』 6, 픽션과논픽션학회, 2024; 이하은, 「바깥의 청소년과 기억의 정치 - 최진영의 『구의 증명』을 중심으로 -」, 『아동청소년문학연구』(38),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25. 참조.

학계나 문학 비평의 장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일요일」의 서사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자음과모음』 2019 겨울호(제43호)에 처음 발표된 「일요일」(이하 ‘계간지본’)과 소설집 『일주일』(자음과모음, 2021)에 재수록된 「일요일」(이하 ‘단행본’)의 비교를 통해 개작 양상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도출해 내는 것이다.

“작가들이 노동하듯이 작품을 고치고 다듬는 일을 반복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 작품이 한층 자신의 의도에 부합하는 결과⁸⁾를 보여주는 행위이기에, 계간지에 발표된 뒤 단행본으로 출판되는 과정에서의 개작은 당연한 작업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일요일」의 개작이 갖는 깊이는 단순한 윤문 차원에 있지 않다. 주제와 구조의 조정, 미적 가치의 제고와 같은 심층적 차원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작 횟수나 판본 수의 많고 적음과는 무관하게, 작가 의식의 정확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유의미한 개작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선보이고자 한다.

가장 간명한 언어로 표현해 보면, 「일요일」은 청소년 노동자 ‘나’가 겪는 사회구조적 폭력을 문제적으로 바라보고 사회 속 인간다운 삶의 상실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본 연구는 그 서사적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해, 우선 2장에서 ‘나’의 노동이 정체성을 상실하게 하는 아이러니에 초점을 두고 ‘나’에게 왜곡된 죄책감을 강요하는 폭력의 사회구조를 분석한다.

다음 3장에서는 현실의 세속적 조건들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듯 보였던 ‘나’, 민주, 도우의 순수한 관계성마저도 그 조건들에 의해 정서적 균열을 겪게 되고, 서로의 삶을 구분 짓는 계급적 격차가 가시화되는 양상을 살펴본다. 이후 4장에서는 계급 스펙트럼의 양극단에 위치한 ‘나’와 도우가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비슷하게 경험하게 되는 소외의 문제, 그 소외 속에서도 두 사람이 끝끝내 놓지 않는 실존적 온기를 조명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본 연구는 「일요일」이 던지는 질문인 ‘한

8) 강진호, 「포즈로서의 문학과 현실로서의 문학 - 『7번국도』의 개작을 중심으로」, 『현대소설 연구』(94), 한국현대소설학회, 2024, 7면.

국 사회 제도 안팎의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불행은 당연한가?⁹⁾에 관한 답을 찾아 나서는, 우리 사회의 동기적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를 소망한다.

2. 내면화된 폭력과 개인화된 죄책감의 강요

「일요일」은 최진영이 은유의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을 읽고 쓴 작품이다.¹⁰⁾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은 직업계고에 진학해 현장실습생으로 일을 하다 자살로 죽음에 이른 김동준 학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죽음의 원인은 부당한 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이었으며, 그의 죽음은 이후에도 반복되는 또 다른 김동준들의 비극과 함께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다.

「일요일」의 서술자 ‘나’는 그러한 김동준들 중 하나로 대표되는 인물이다. 일반계고에 진학한 민주, 외국어고에 진학한 도우와 달리 ‘나’는 특성화고에 진학해 학교 수업과 산업체 현장 실습,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살아간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 온 ‘나’는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거나 세계 여행을 하는 등 자신이 번 돈으로 삶을 당당하게 살아 보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바람과는 다르게, ‘노동’을 시작한 순간부터 ‘나’는 ‘학생’, ‘노동자’ 그 어떤 정체성도 오히려 부여받지 못한다. “낙오자”, “쉬운 일만 하려는 젊은 것들”, “이기적이고 약해빠져 쓸모가 없는 요즘 애들”¹¹⁾로 평가절하만 당할 뿐이다.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 결정했던 특성화고로의 진학이, 오히려 타자가 자신을 ‘주체적 의지가 결여된 무가치한 인간’

9) 김누리의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라는 책 제목에서 착안함.(김누리,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해냄, 2020. 참조.)

10) “이 소설은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은유 지음·임진실 사진, 돌베개, 2019)을 읽고 썼습니다.”(최진영, 「일요일」, 『일주일』, 자음과모음, 2021, 49면.)

11) 최진영, 위의 책, 37면.

으로 치부하도록 만든 셈이다. 단행본에는 ‘나’가 경험하는 이러한 상황의 아이러니와 그 속에서 ‘나’가 느끼는 복잡다단한 감정이 잘 드러나 있다.

아르바이트나 임시직도 취업률에 포함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자기 반의 학생이 무슨 일이든 하길 원했다. 졸업할 때까지 취업을 못 한다면 낙오자 취급을 받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명절에 모인 친척들은 일찍부터 돈 버는 나를 낙오자처럼 봤다. 공부하기 싫으니까 최저시급 받으며 일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공부에 재능이 없으면 일찌감치 기술을 배우는 게 낫다는 말도 했다. 대박 나라는 말을 덕담으로 나눴다. 그 모든 엉망진창 말들이 웃기기도 짜증났다.¹²⁾

밑줄 친 부분은 계간지본에 실려 있던 것¹³⁾과 의미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다. 다만, 개작 과정에 일부 문장이 삭제되었고, “친척들이”가 “명절에 모인 친척들”로 수정되었으며 전반적인 문장이 다듬어졌다. 밑줄 친 부분이 삽입된 위치도 달라졌다. 계간지본에서는 해당 내용이 공백행 뒤 새 에피소드의 첫 문단으로 위치했으나, 단행본에서는 공백행 없이 다른 문단들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 내용은 학생들을 일터로

12) 최진영, 위의 책, 46면. 이하 인용문의 모든 ‘밑줄’과 ‘진하게’는 인용자의 것이며 ‘밑줄’은 개작 과정에서 ‘수정’된 것을, ‘진하게’는 인용자의 해석 과정에 재언급한 부분을 뜻함.

13) “…… 같이 여행을 가자고 민주가 제안했다.

(공백행)

일하기 싫은 적은 없었다. 적으니까 내 힘으로 돈을 벌고 계획을 세우는 게 좋았다. 친척들은 일찍부터 돈 버는 나를 낙오자처럼 봤다. 공부하기 싫으니까 최저시급 받으며 일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공부에 재능이 없으면 일찌감치 기술을 배우는 게 낫다는 말도 끌어 했다. ‘대박 나라는 말을 덕담으로 나눴다. 나는 그 모든 엉망진창 말들이 웃기기도 짜증났다.’(최진영, 「일요일」, 『자음과모음』, 자음과모음, 2019 겨울호(제43호), 138면.)

이하 인용문의 모든 ‘취소선’은 인용자의 것이며 개작 과정에서 ‘삭제’된 것을 표시함. ‘(공백행)’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인용자가 적은 것.

보내 취업률만 높이려는 학교 분위기가 서술된 문단 뒤에 위치해 있다.

‘나’는 경제적 자립을 위해 특성화고 진학을 하고 현장 실습도 나갔지만, 실습생에 대한 업체의 처우는 좋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나’의 현실적인 선택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학교에서는 졸업 전 취업을 하지 못하면 낙오자 취급을 했으니, ‘나’는 무엇이든 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친척들은 돈벌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나’에게 낙오자라는 시선의 굴레를 씌운다.

단행본에서는 그 친척들이 “명절”에 모였음을 명시함으로써, 서로 덕담을 주고받아야 하는 날임에도 편견, 비하 등의 말들로 ‘나’의 가치를 깎아 내리는 친척들의 행동이 지닌 폭력성을 강조한다. 또한, 낙오자가 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그 단어를 다시 마주하게 된 ‘나’가 겪는 상황의 아이러니를 가시화한다. “웃기고도 짜증 났다”는 문장으로 표현된 ‘나’의 감정은 바로 이 아이러니에서 비롯되는 고소(苦笑)와 슬픔이다.

한편, ‘나’가 겪는 이 아이러니는 개인의 우연한 경험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청소년’을 규정하는 방식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다. 사회에서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보편 인식 속에 진학을 위해 무언가를 배우는 ‘학생’이라는 단어와 동치된다. “청소년의 의미역이 학생의 의미역으로 제한되고, 대표됨으로써 일정한 왜곡이 발생”¹⁴⁾한 현상이다. 또한, 한국의 수직적·획일적인 입시구조가 ‘학생’의 의미역을 ‘진학’이라는 단일한 환원 기제로 수렴시키기에, 청소년의 의미역이 지니는 외연이 줄어든 현상이다.

이러한 인식이 기본값이 된 한국 사회에서 ‘나’처럼 입시 준비가 아닌 노동하는 경제 주체로 살아가는 청소년은, 손쉽게 패배자로 낙인 받는다. “학업을 저버린 부적응 청소년”¹⁵⁾이라는 편견에 시달린다. 이뿐 아니라,

14) 오세란, 「‘학생’과 ‘노동’으로 고찰한 청소년 정체성 - 청소년소설 『결에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 『아동청소년문학연구』(31),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22, 266면.

15) 강서희, 「『나는 무너』에 재현된 청소년 주체의 애도 양상과 교육적 의의 - 별거벗은 생명으로서의 청소년 노동자에 주목하며 -」, 『한국아동문학연구』 49, 한국아동문학학회, 2024, 10면.

그들 또한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응당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노동 현장에 무력하게 노출되며 이중고를 겪는다. 즉, 이들은 제도권 교육의 틀 안에 여전히 속해 있으면서도, 노동 현장에서는 제도권 내의 소속이 이들의 보호막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 제도의 ‘안’과 ‘밖’이라는 이분법적 경계로는 온전히 포착되지 않는, 모순적인 위치에 ‘나’와 같은 현장실습생이 자리하는 것이다.

「일요일」에서 현장실습생을 고용하는 업체들은 표준협약서를 따르지 않으며, 월급을 제때 주지 않거나 아예 주지 않기도 한다. 고장 난 기계의 수리나 교체도 미루며, 위험한 기계로 작업하기를 꺼리는 직원들이 늘어나면 그 몫을 실습생들에게 돌린다. 그 상황을 안 도우는 실습생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나’의 안전을 염려한다. “도우는 ‘미성년자’ ‘실습생’ ‘일요일 밤’ ‘혼자’ ‘일하다가’ ‘죽었다’라는 단어”¹⁶⁾들의 나열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 상황이 당장의 현실이 될 수 있는 매일을 살아간다. 이는 비단 소설 속 이야기만이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의 노동은 임시적이고 비전문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그들의 노동은 “영세하고 단기적인 근로 현장에서 소모”되며 자본 논리에 착취되기 쉽다. 노동자로서의 청소년은 “비가시적 영역에서 법적인 보호망 밖에 있다는 점에서 별거벗은 생명”¹⁷⁾과 다름없다. 최진영은 그 생명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시선과 언어들을 서사 곳곳에 배치함으로써, 그들의 정신적 고통을 ‘나’의 삶으로써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요일」에서 그 폭력을 행하는 주체가 앞서 언급한 친척들을 비롯해 업체 직원들, 학교 선생님, 부모 등 주로 이 사회를 이끌어 온 기성세대, ‘어른들’로 나타난다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16) 최진영, 앞의 책, 2021, 34면.

17) 강서희, 앞의 글, 10면.

선생님들은 실습 나갔다가 학교로 되돌아오는 **학생**을 싫어했다. 취업률도 떨어지고 협력 업체랑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현장 실습 나간 3학년이 학교로 돌아오거나 좋지 않은 평가를 받으면 나중에 그곳으로 실습 갈 후배들에게도 폐가 되는 거라고 했다.

버티라고, 돌아오면 안 된다고

우리는 부당한 지시가 무엇인지 배우지 않았다. 해야 할 일을 해내는 방법과 예의를 지키는 법만 배웠다. 실습 현장에서 힘들다고, 위험해 보인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 우리를 어떤 인간으로 규정할지 잘 안다. 낙오자. 쉬운 일만 하려는 젊은 것들. 이기적이고 약해빠져 쓸모가 없는 요즘 애들.¹⁸⁾

계간지본에서는 “선생님들은 실습을 나갔다가 학교로 되돌아오는 **결** 싫어했다.”¹⁹⁾였던 것이, 단행본에서는 “~학교로 되돌아오는 **학생**을 싫어했다.”로 수정되었다. 이로써 ‘싫음’의 대상이 학생이 되돌아오는 ‘현상’이 아닌 되돌아오는 ‘학생’에게로 초점화된다. 학생을 되돌아오게 하는 현실의 부조리를 문제 삼기보다, 되돌아오는 것은 학교에 폐를 끼치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학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부각한 것이다. 이는 존중받는 실습생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학생들이 하는 “힘들다”, “위험해 보인다”, “할 수 없다”는 말들을, “쉬운 일만 하려는 젊은 것들”, “이기적이고 약해빠져 쓸모가 없는 요즘 애들”²⁰⁾이 늘어놓는 ‘이기적인 푸념’으로 취급하는 직장 내 어른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

한편, 계간지본에서는 “버티라고, 돌아오면 안 된다고”가 인용절로 안겨 앞뒤 공백행 없이 한 문단 안에 처리된 반면, 단행본에서는 이 문장이 인

18) 최진영, 앞의 책, 2021, 36-37면.

19) 최진영, 앞의 책, 2019, 135면.

20) 최진영, 앞의 책, 2021, 37면.

용절만 남은 불완전한 문장으로 끝나고, 앞뒤 공백행이 삽입된 독립적 문단으로 재배치되었다. 그 결과, 이 문장의 무게감이 시각적으로도 조명된다. 공백행으로 인한 문장 전후의 여백들은 명시적·암묵적인 모든 폭력의 시선과 언어를 감내해야 하는 ‘나’의 ‘무력감’을 미적으로 형상화한다.

계간지본에서는 본래 이 발화의 주체가 ‘선생님들’로 특정되었으나, 단행본에서는 그 주체가 지워져 있는 것 또한 인상적이다. 발화 주체를 감춤으로써, 이 말은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나’에게 전해진 말, 혹은 너무 많이 들어 ‘나’의 머릿속에 맴도는 누군가의 목소리로 이해된다. 이러한 해석은 인형 뽑기를 하는 도우를 바라보던 ‘나’가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반드시 보상이 따르다”와 “힘들다고 포기하면 낙오자가 된다”는 말을 떠올리는 장면과도 연결된다. ‘나’는 그 말들을 떠올리며 “누구에게 들었는지 알 수 없는 말인데 절로 외우고 있었다.”²¹⁾라고 서술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어른들의 말을 부정하지 않고 성실하고 온순하게 일하면 “합당한 보상이 따라올” 것이라는 말, “다들 그렇게 산다”²²⁾는 말들처럼, ‘나’가 지겹게 들어온 어른들의 말들은 ‘나’에게 내면화된 폭력으로 남는다. ‘나’는 그 말의 그림자에 자신을 가두고 그 그림자는 ‘나’의 심리를 지배한다. 그로 인해, ‘나’는 자신과 무관한 일까지 제 탓으로 돌리거나, 모든 부정적 상황을 자기 존재와 연관 짓는 인지 왜곡을 경험하며 죄책감을 느낀다. 개작을 통해 최진영은 그러한 내면화된 폭력과 개인화된 죄책감을 가중하는 어른들의 자리에, ‘나’의 부모도 중요하게 자리함을 강조한다.

아버지는 ‘세상 살기 좋아졌다’는 말을 자주 했다. 너무 자주 해서 때로는 말과 말 사이에 집어넣는 욕처럼 들렸다. 아버지도 그 뜻을 모르고 중얼거리는 것만 같았다. 아버지의 습관 같은 말은 대충 다음과 같다.

세상이 좋아지고 사는 게 편해져서 젊은 사람들이 힘든 일은 안 하고

21) 최진영, 위의 책, 29면.

22) 최진영, 위의 책, 38면.

쉽게 돈 벌려고 하니까 나라 경제는 점점 안 좋아지고…….

언젠가 엄마는 크게 신경질을 내며 이렇게 대꾸했다. 덜 힘든 일이랑 더 힘든 일이 있으면 당연히 덜 힘든 일을 선택하지. 젊은 애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다 그런 건데 뭘 젊은 애들 탓을 해. 당신은 그랬어? 나라 경제 생각해서 힘든 일만 골라 했어? 나라 사정 안 좋은 것까지 어쨌서 애들 탓을 해. 이제 막 시작하는 애들이 뭘 죄가 있다고.²³⁾

개작 과정에 “아버지의 습관 같은 말은 대충 다음과 같다.”가 삽입되었다. 아버지의 말에 “크게 신경질을 내며” “대꾸”하는 엄마의 비언어적 표현이 언어적 표현과 함께 추가되기도 했다. “당신은 그랬어? 나라 경제 생각해서 힘든 일만 골라 했어?”라며 아버지 개인을 향한 엄마의 공격감 섞인 반문 또한 반영되었다. 그 결과, 단행본에서는 ‘세상’과 ‘젊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와 엄마의 대립적인 관점이 더욱 부각된다. 엄마는 안 좋은 나라 사정을 무고한 젊은 애들 탓으로 돌리는 남편을 비판하고 그 아이들을 옹호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술되는 문단으로 최진영이 새롭게 쓴 다음 문장들을 보면, 단행본에는 ‘나’의 고통을 대하는 엄마의 태도가 지닌 한계점까지도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엄마는 내게 말했다. 남의 돈 받아서 먹고사는 일은 원래 다 힘들다고.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해버릇하면 이도 저도 안 된다고. 무슨 일든 다 힘들다고 생각하면 못 버틸 일이 없다고.²⁴⁾

엄마가 이 말들을 ‘나’에게 함으로써, 기성세대(아버지)의 부당한 비난으로부터 젊은 세대를 보호하려던 엄마의 목소리는 열어진다. 동시에, “힘들다고 포기하면 낙오자가 된다”²⁵⁾는 말의 논리를 예둘러 담은 듯한

23) 최진영, 위의 책, 24-25면.

24) 최진영, 위의 책, 25면.

25) 최진영, 위의 책, 29면.

엄마의 또 다른 목소리가 짙어진다. 두 목소리에는 사회 일반의 부조리한 시선에 대해서는 부정함을 표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식에게는 그럼에도 사회 순응적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역설적인 요구가 담겨 있다.

이러한 개작은 ‘나’의 개인화된 죄책감을 강조하는 데 효과가 있다. ‘나’의 입장에서 젊은 애들에 대한 아버지의 비난은 ‘습관적 언사’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도 넘길 수 있다. 반면, 엄마의 말은 ‘나’에 대한 조언의 형식으로 한 꺼풀 감싸져 있기에, ‘나’의 입장에서 그 뜻을 부정하거나 외면하기가 쉽지 않다. 엄마에게마저 ‘이도 저도 안 되는 아이’, ‘포기가 빠른 아이’, “부당한 사람”²⁶⁾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나’는 ‘나’를 위하는 엄마의 사랑을 알기에 신의를 저버리지 않으려 버터내길 택한다. 그로 인해 ‘나’는 자기 고통의 원인을 사회 구조가 아닌 자기 능력이나 자격 부족의 문제로 귀결시키는 과정에 무더진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유를 말하기 때문이다. 이유를 듣다 보면 결국 내 책임이다. 내가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이다. 사람의 삶이란 가치 있고 소중하다 믿고 열심히 내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가? 나의 삶은 가치 있나? 낡은 기계를 고치거나 교체하는 가격만큼? 나의 한 시간은 6500원도 안 된다. …… (중략) 나처럼 계약서 없이 일하고 최저시급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의 말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노동자가 아니니까. 실습생이니까.

하지만 나는 노동을 한다.²⁷⁾

26)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는 순간 나는 부당한 사람이 된다.”(최진영, 앞의 책, 2019, 135면)

27) 최진영, 앞의 책, 2021, 9-10면.

단행본의 도입부에서, 위 내용이 상당한 분량으로 새롭게 추가되었다. 사회 구조와 타자의 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던 ‘나’가, 그 폭력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하고 폭력의 원인마저도 개인화하며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심리 기제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일요일 밤 9시 38분, ‘나’는 고장 난 기계 앞에 서서 자신이 겁에 질려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집착하듯 반복한다. “결국 내 책임”, “내가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말에는 부정적인 자아개념으로 인한 과도한 자책감이 서려 있다. 자기 삶의 가치가 “낡은 기계를 고치거나 교체하는 가격만큼”도 되지 못하고, 자신의 한 시간이 6500원도 안 되며, 자신은 “최저시급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말에는 정체성의 존중을 받지 못한 이의 자기 비하감이 가득 차 있다.

“대가가 지급되는 노동은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수단”²⁸⁾이다. ‘나’의 정체성 상실은 노동을 하면서도 노동자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며, ‘나’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까닭마저 자신이 실습생이기 때문이라고 자조한다. 이 혼란 말들은 삶과 죽음 사이에 위태롭게 서서 스스로를 구할 수 없는 이유마저도 끝내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마는 존재의 비극을 극대화한다.

3. 계급적 분화에 따른 정서적 균열의 부각

‘일요일’은 한 주의 끝이자, 다시 시작될 한 주를 준비하는 날이다. 많은 사람은 일요일이면 지난 한 주의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 여가 생활을 하며 휴식을 취한다. 하지만 「일요일」의 ‘나’는 그런 평범한 일요일을 보내지 못한다. 일요일 밤, 늦은 시각에도 홀로 기계 앞에 서서 야근을 해야

28) 오세란, 앞의 글, 282면.

하는 것이 ‘나’의 현실이다. 앞선 장에서 이야기한 ‘나’의 비극이 더 애달픈 까닭은, 삶을 열심히 살아가려는 한 청소년에게서 보통의 사람들이 누리는 ‘일요일’의 일상성까지 빼앗아 가는 사회의 잔혹함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개작 양상을 토대로, 자본 세계의 권력이 개인의 일상에 침투해 ‘순수’의 세계를 ‘불공평’의 세계로 덮어 버리는 「일요일」의 서사를 주목한다. 최진영은 개작을 통해 ‘나’, 민주, 도우의 조건 없는 우정에 일어난 정서적 분열과 계급적 분화를 더욱 섬세하고 정확하게 그려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매주 성당에서 만나 서로 같은 일요일을 보내던 세 사람이, 서로 다른 일요일을 보내게 되는 ‘시기’를 구체화한 부분이다.

(가1) 어느 일요일에는 도우도 민주도 성당에 나오지 않았다.²⁹⁾

(나1) 초등학생이었던 어느 일요일에는 도우도 민주도 성당에 나오지 않았다.³⁰⁾

(가1)은 계간지본, (나1)은 단행본으로 개작 과정에 ‘초등학생이었던’이라는 시간 표지가 삽입되었다. 세 사람은 유치원 때 만나 중학교까지 같이 다니며 오랜 우정을 쌓아왔다. 후술된 부분에서 1인칭 서술자인 ‘나’가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세 사람의 일요일이 중학생 시기부터 달라졌다고 말하지만³¹⁾, 앞선 서술인 (나1)을 고려하면 엄밀히 말해 이들의 일요일이 달라진 것은 중학교 시기부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중학교 시기는 도우가 가진 것과 민주와 ‘나’가 갖지 못한 것—도우가 다니는 과외, 도우의 휴대폰과 신용카드, “공부도 잘하고 랩도 잘하고 바

29) 최진영, 앞의 책, 2019, 124면.

30) 최진영, 앞의 책, 2021, 13면.

31)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우리의 일요일은 약간 달라졌다. (중략) 도우는 우리 중 가장 먼저 핸드폰을 가졌다. 도우는 용돈을 따로 받지 않았고 어른들이 쓰는 카드를 들고 다녔다. (중략) 전교생 중 도우를 모르는 아이가 거의 없었다. 도우는 **공부도 잘하고 랩도 잘하고 바이올린 연주도 잘했다**. 어떤 아이들은 도우를 연예인처럼 대했다.”(최진영, 위의 책, 18면)

이울린 연주도 잘”하는 도우의 능력, “연예인” 대접을 받는 도우의 인기 등—의 차이가 가시적으로 ‘나’에게 분명히 인지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나1)로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은 1인칭 서술자인 ‘나’의 이러한 인지와 관계없이, 이들의 일요일은 이미 더 이른 시기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음을 최진영이 독자에게 말해주고자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민주와 도우가 성당에 없었던 그날의 일요일에, ‘나’는 미사가 끝난 뒤에도 성당 마당에 남아 돌을 기다린다. 기다리면 늦게라도 올 것 같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마음은 혼자 거기서 무엇 하느냐는 한 어른의 질문으로 곧장 ‘배신감’과 ‘분노’로 바뀌고, ‘울음’으로 표출된다. “이후에도 그런 일은 여러 번 있었지만 배신감 같은 건 다시 갖지 않았다.”³²⁾라는 이후 서술에는 자기 안의 불안정하고 복잡한 감정 세계를 애써 외면하려는 ‘나’의 강한 방어기제가 담겨 있다.

“청소년기는 또래문화가 형성되는 시기”로, 비슷한 연령의 아이들이 “물리적·사회적으로 비슷한 상황”³³⁾ 속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우정을 나눈다. 이 시기 청소년들은 친구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우정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느낀다. 단행본에 언급된 ‘초등학생’이라는 표지 또한 청소년기 초입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제시는 이전과는 달라진 삶의 양상 속에 ‘나’가 느끼고 견뎌온 내면의 부정적 감정이 얼마나 오래된 것이었는지,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독자가 짐작하게 한다.

열여덟 살의 어느 일요일에도 초등학생이었던 그날의 일요일을 떠올리며 “그날의 모든 행동과 감정”³⁴⁾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는 ‘나’의 모습

32) 최진영, 위의 책, 13-14면.

33) 윤현진, 「청소년문학의 장르와 탈장르 - 성장소설을 넘어서는 ‘독자성’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66, 국어문학회, 2017, 420면.

34)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문득 그때가 떠올랐다. 나는 부끄러워서 괜히 오토바이 경적을 울렸다. 자꾸 뒤를 돌아봤던 것, 나무를 발로 차고 침을 뱉은 것, 기다리면 올 거라는 생각, 배신당했다는 느낌, 붉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울었던 것, 나만 알고 있는 **그날의 모든 행동과 감정이 부끄러웠다**. 한번 떠오른 기억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다.”(최진영, 앞의

이 이를 증명해 준다. 그날의 감정이 ‘나’의 내면에 각인되어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시간이 흐르며 그 감정은 ‘나’의 과도한 자기 비관과 함께 ‘수치심’으로까지 변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 감정은, 일요일에 친구들과 함께하며 ‘나’가 느낀 감정의 ‘이름’을 단행본에서 계간지본과 달리 붙인 최진영의 의도와도 연결된다.

(가2) 그저 주말이면 셋이 함께 치르는 고요한 의식이 좋았다. 그 시간을 기다렸고,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지.³⁵⁾

(나2) 주말이면 셋이 함께 치르는 고요한 의식이 좋았을 뿐. 그 시간을 기다렸고 함께할 수 있어서 안심했지.³⁶⁾

계간지본에서는 “감사”였던 것이, 단행본에서는 “안심”으로 수정되었다. ‘감사’는 주체가 이미 안정된 상태에서 대상(현상)에 대해 갖는 발산적이고 긍정적인 감정이고, ‘안심’은 주체가 무의식적 불안정감을 느끼거나 무언가 결핍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대상(현상)에 의해 일시적으로 그 불안정감과 결핍이 해소되어 느끼는 수렴적이고 방어적인 감정이다. 앞선 서술에서 ‘나’가 고백한 감정이 부끄러움 또는 수치심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나2)의 문맥에는 그러한 억눌린 감정을 일시 봉합해 주는 심리적 진정 상태, “안심”이 들어가는 것이 더욱 적절해 보인다.

또한, ‘나’는 “감사/안심”을 “위안”³⁷⁾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한다. 이때 ‘감사-위안’은 다소 이질적 성격의 조합이지만, ‘안심-위안’은 비교적 동질적 성격의 조합으로 구성의 결이 정합적이다. “안심”으로의 개작이 최진영의 의도적 선택에 따른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함께할 수 있어서

책, 2021, 14면)

35) 최진영, 앞의 책, 2019, 125면.

36) 최진영, 앞의 책, 2021, 15면.

37) “언제부터인가, 나는 **위안**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다행이고 좋다는 느낌은 **위안** 아닌가?”(최진영, 같은 곳.)

안심했지.”라는 문장에 담긴 감정의 본질은 우정에서 온 순수한 행복감이 아니라 불안정한 자아가 붙잡는 안전감에 가깝다. 단행본에서는 이처럼, 이를 예리하게 포착하는 최진영의 언어적 감각이 돋보인다.

‘친구들과 일요일을 함께 보낸다는 것’은 ‘나’에게 큰 의미를 지닌다. 즉, 「일요일」에서 ‘일요일’은 지시적 의미를 넘어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일요일’은 외부 요인이 개입될 여지가 적었던 순수의 시기, 세 사람의 신뢰 깊은 관계성을 증명해 주면서, 그들의 성장에 따라 가정 환경에서 기인한 경제적인 계층의 차이를 선명하게 만들고 자의와 타의에 의해 와해되기 시작하는 그들의 관계성을 기민하게 보여준다.

9년 동안 세 사람 중 두 사람 이상이 단 한 번도 같은 반이 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다음 인용문에서 도우가 말하는 “확률”의 문제이거나 민주가 말하는 “선생들의 음모”가 아니다. 이미 서로 다른 삶의 궤도 위에 놓여 있던 세 사람을 사회 구조가 반복적으로 분리해 온 결과에 가깝다.

근데 우리는 어째서 그럴 수 없었느냐. 도우가 우리 셋이 동시에 한 반이 될 수 있는 **확률**과 우리 중 두 사람이 한 반이 될 수 있는 **확률**을 각각 계산해보겠다고 했다. 아니, **확률** 같은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민주는 답답하다는 듯 대꾸했다. 어쨌든 우리가 같은 반이 된 적은 없으니 이것은 **선생들의 음모**가 확실하다고 덧붙이더니, 근데 선생들이 어째서 그런 음모를.....³⁸⁾

이러한 해석은 개작 과정에 밀줄 친 부분이 새로 삽입되었다는 사실로도 뒷받침된다. 최진영은 이 장면의 서술을 계간지본보다 구체화하여, ‘학급 편성’이라는 표면적 결과가 민주의 눈에 “음모”로 보이게 만들었다. 차별과 배제의 논리가 작동하는 현실 속에, 각기 다른 계층으로 놓여 있는 세 사람 사이의 공고한 경계를 학급 편성 결과로 표상화한 것이다.

38) 최진영, 위의 책, 12면.

「일요일」의 ‘나’, 민주, 도우는 서로 다른 가정 환경을 갖고 있다. 도우는 대대로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 돈 걱정 없는 생활을 하고, 부모의 무한한 지원을 받으며 공부를 한다. 도우만큼은 아니지만 민주도 부모의 안정적인 경제력에 기대어 학원을 다니며 공부를 한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고 싶어 일찍이 돈을 번다. ‘나의 부모는 일요일도 없이 성실히 일을 해왔지만, 부자가 되기는커녕 일요일에 쉬는 도우 아버지보다도 월급을 적게 받고, 아픈 곳만 생길 뿐이기 때문이다.

세 사람의 가정 환경을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놓고 보면, 중심에 민주가 있고 양 끝에 ‘나’와 도우가 있다. 그에 따라 「일요일」은 세 사람의 전체 관계성보다 ‘나’와 도우의 관계성이 변모되는 양상에 서사의 초점을 둔다. 이들의 삶은 ‘나’가 특성화고, 민주는 일반계고, 도우는 외국어고에 진학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하고, ‘나↔도우’의 물리적·정서적 거리는 ‘나↔민주’, ‘도우↔민주’의 거리보다 더 멀어진다. 이 거리는 ‘나’와 민주는 종종 연락을 하고 만나기도 하지만 ‘나’는 도우의 소식을 거의 민주를 통해 전해 듣는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또한, 도우의 부모가 도우의 휴대폰에서 “우리 전화번호를 지웠다”³⁹⁾고 민주가 ‘나’에게 말할 때, “우리”라고 표현했지만 어찌면 ‘우리’의 목록에 나만 포함된 것은 아닐까⁴⁰⁾라고 ‘나’가 생각한 점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처럼 세 사람 사이의 정서적 균열은 서로에게 균등하게 나타나기보다, ‘나’와 도우 사이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정서적 거리감의 형태로 먼저 나타난다. 그리고 그 정서적 거리감은 단행본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계간지본에는 ‘나의 아르바이트 장소로 민주나 도우가 잠깐씩 찾아올 때가 있었다는 서술이 있지만,⁴¹⁾ 단행본에는 그 서술이 “민주는 내가 아르바이트하는 매장으로 종종 찾아왔”지만, “도우 소식은 거의 들을 수 없었

39) 최진영, 위의 책, 33면.

40) 최진영, 같은 곳.

41) 최진영, 앞의 책, 2019, 137면.

다.”⁴²⁾로 수정되어 있는 것이 그 근거이다.

단행본에는 ‘나 · 민주’↔‘도우’라는 2:1 구도에서의 정서적 균열감과 계급적 분화를 부각하기 위한 개작도 곳곳에 이루어져 있다. 첫째, 계간지본의 “민주와 나”라는 표현이 단행본에서 “우리”라는 인칭대명사로 수정되었다.⁴³⁾ ‘나’의 입장에서 민주나 도우는 모두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자신의 계급과는 다른 계급에 속하는 인물들이다.⁴⁴⁾ 그럼에도 민주는 ‘나’에게 물리적으로는 정서적으로는 도우보다 상대적으로 가까운 인물이다. 따라서 ‘나’의 그런 마음을 마치 은연중에 표현하기라도 하듯, 단행본에서는 ‘나’가 자신과 민주를 ‘우리’로 지칭하는 것으로 개작이 이루어졌다.

둘째, 인형을 뽑은 뒤 뒤돌아서 걸어가던 도우의 행동에 대한 묘사가 개작 과정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로 바뀌었다.

(가3) 도우가 우리를 돌아보며 대꾸했다.⁴⁵⁾

(나3) 도우는 우리를 돌아보지도 않고 대꾸했다.⁴⁶⁾

계간지본에서 “돌아보며”였던 것이 단행본에서 “돌아보지도 않고”로 수정되었다. 도우는 입시 경쟁의 승자가 되기 위해 자신과의 싸움을 하며

42) “그해 겨울 **민주**는 내가 아르바이트하는 매장으로 종종 찾아왔다. …… **도우 소식은 거의 들을 수 없었다.**”(최진영, 앞의 책, 2021, 44면)

43) 계간지본에서는 “**민주와 나**는 피시방에 가거나 농구를 하거나 자전거를 탔다.”였던 것(최진영, 앞의 책, 2019, 127면)이 단행본에서는 “**우**리는 피시방에 가거나”로 개작되었다.(최진영, 앞의 책, 2021, 20면)

44) 민주는 ‘나’에게 “불공평하지 않아?”(최진영, 같은 곳)라고 이야기한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모든 것을 다 갖춘 도우 같은 애들을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말을 하는 민주가 누리는 환경마저도 부럽기만 한 현실에 놓여 있다. 따라서 ‘나’는 역으로 민주에게 먼저 “불공평하지 않아?”라고 물을 생각도 차마 할 수 없다. 민주가 도우와 자신을 비교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하듯, ‘나’는 도우만이 아니라, 민주와 자신을 비교해서도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45) 최진영, 앞의 책, 2019, 132면.

46) 최진영, 앞의 책, 2021, 30면.

매일을 버텨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로 인해 도우에게는 ‘나’ 또는 민주를 돌아볼 여유가 없는 순간이 발생한다. 계간지본에서 ‘나’와 민주를 돌아보며 대꾸를 했던 도우가, 단행본에서 “우리(나와 민주)를 돌아보지도 않고 대꾸”하는 도우로 달라진 것은, 각자의 현실 변화에 따른 ‘나·민주 ↔도우’ 사이의 정서적 균열을 최진영이 부각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셋째, ‘강싸’에 관한 에피소드가 개작 과정에서 상당한 분량으로 새롭게 추가되었다. ‘나’를 무참하게 괴롭히던 강싸 무리는 “내 친구니까 하지 말라”⁴⁷⁾는 도우의 말 한마디에 곧 폭력을 멈춘다. 이후 ‘나’도 울고 그 모습을 본 민주도 울지만 도우는 울지 않는다. “손을 씻고 세수”⁴⁸⁾를 할 뿐이다. 정확한 이유는 다를지라도 ‘나’와 민주는 비교적 동질적인 감정의 표현을 하지만, 도우는 이질적인 행위를 한 것이 대비된다.⁴⁹⁾

우리는 이후에도 그 일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않았다. 세 명 모두 그 일을 완전히 잊은 것처럼 굴었다. …… 그때 느꼈던 무력감, 힘으로는 절대 강싸를 이길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을 잊을 수 없다. 나는 누군가의 신체를 그런 식으로 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절대 그럴 수 없었다. 이후 학교나 거리에서 폭력적인 상황을 마주칠 때마다 도우를 생각했다.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과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⁵⁰⁾

47) 최진영, 위의 책, 42면.

48) “도우는 강싸를 때리지 않았다. 욕하거나 협박하지도 않았다. 돈을 주지도 않았다. 선생님을 부르지도 않았다. **내 친구니까 하지 말라고 말했을 뿐이다.** 내 머리카락을 잡고 있던 강싸의 손에서 조금씩 힘이 풀렸다. / 나는 울었다. 민주도 울었다. 도우는 세면대로 가서 **손을 씻고 세수를 했다.** 나는 도우에게 고맙다는 말도 하지 못했다. **공포와 치욕**뿐이었다.”(최진영, 위의 책, 42-43면)

49) 도우의 도움으로 강싸의 괴롭힘에서 빠져나온 ‘나’이지만, ‘나’는 도우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못한다. “공포와 치욕”을 느꼈기 때문이다.(최진영, 위의 책, 43면) ‘나’의 울음은 그 공포와 치욕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크지만, 민주의 울음은 공포에서는 비롯될 수 있어도 치욕에서 비롯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두 사람이 울게 된 ‘정확한 이유’는 다를 것이라고 서술하였다.

50) 최진영, 같은 곳.

‘나’와 민주는 부당한 행위를 당하거나 눈앞에서 지켜보면서도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반면, 도우는 욕이나 협박 등의 ‘폭력’에도, ‘돈’에도, 선생님의 ‘권위’에도 기댈 필요 없이, 오직 말 한마디로 타인의 행동을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다. 도우의 말이 그러한 힘을 가진 것은 도우가 이미 학교 안팎에서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지위는 사회경제적 구조가 도우에게 부여해 준 암묵적인 권력을 작동시킨다. 이 권력은 ‘경찰’처럼 제도적 권력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이의 권력보다 더 강력하고 즉각적인 영향력을 갖는다.⁵¹⁾

‘나는 폭력적 상황을 마주칠 때마다 도우를 떠올리고,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과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라는 말을 읊조린다. 이는 도우와 강씨, 도우와 ‘나’(또는 민주) 사이를 구분 짓는 계급적 위계에 대한 통찰이 새어 나온 결과이다. 강씨 사건 이후 세 사람 모두 “그 일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않”고, “그 일을 완전히 잊은 것처럼” 군 까닭에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룬 세 사람의 순수한 관계성에 현실 조건이 만든 사회의 권력 구도가 개입되는 상황을 배제하려는 서로의 노력이 있다.

4. 인간 소외와 실존적 온기의 대처

단행본에는 ‘나’, 민주, 도우가 ‘가출 계획’을 세우는 장면이 삽입되어 있다. 철부지 계획들을 나누며 세 사람은 부모에 대한 불만을 해소한다. 셋이 “함께일 때 일어나는 사고”가 “누구의 잘못”이 아닌 “우리의 잘못”⁵²⁾

51)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다 괴롭힘을 당하는 또래 아이를 발견해 112에 신고를 하지만, 가해자들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경찰 앞에서도 “실질 웃으면서” 형식적으로 “수고하십니다”라고 말할 뿐이다.(최진영, 같은 곳) 이러한 비아냥은 경찰의 권력이 통제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준다. 그 모습에 피해자도 경찰에게 온전히 기대지 못한다. 이를 지켜보던 ‘나’가 강씨 사건을 회상한 것은, 눈앞의 경찰과 달리 강씨 무리의 행동을 즉시, 잡음도 없이 멈출 수 있었던 도우가 보여준 권력이 더 인상 깊었기 때문이다.

이었던 것처럼, 부모 입장에는 바람직하지 않게 보일 가출 계획도 이들에게는 “엄청난 잘못”⁵³⁾이라기보다 우정을 증명할 소중한 비밀이 된다.

하지만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 세 사람 사이에 정서적 균열이 일어나고 계급의 분화가 가시화되면서 이들에게도 각자의 비밀이 생겨난다. 「일요일」은 그 비밀의 자리에 서사의 두 축을 마주 세운다. 하나는 자본과 계급, 차별과 배제, 경쟁과 능력에 관한 사회구조적 논리에 내몰린 인간 소외이며, 다른 하나는 그 소외의 한복판에서 한 존재를 생존하게 하는 인간 대 인간 사이의 실존적 온기이다. 단행본에서는 ‘나’와 도우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겪는 소외를 하나의 현상으로 묶어내고, 결말에서 그 소외에 정면으로 맞서워지는 이들 사이의 온기를 대치시킨다.

우선, 「일요일」이 무게중심을 두고 조명하는 서사는 서술자이자 청소년 노동자인 ‘나’가 경험하는 소외의 문제이다. ‘나’는 친구들의 삶과 비교할 때 삶의 모양이 가장 이질적으로 달라진 인물로,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는 자기 존재의 무가치함 앞에 내적 갈등을 겪는다. 계간지본과 달리 단행본에서는 ‘나’가 느끼는 무가치함이 ‘나’를 통해 직접 서술되고, 소외를 넘어 생존의 문제까지 당면하게 된 ‘나’의 고통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된다.

일해서 번 돈으로 나의 삶을 사는 것. 그게 나의 꿈이었다. 일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믿었다. 학교 다니는 동안 여러 개의 자격증을 땀다. 나는 그 자격증을 써먹고 싶었다. 그러나 하면 할수록 일은 점점 알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일은 나를 하찮은 존재로 만들었다.**⁵⁴⁾

위 인용문은 단행본에 삽입된 문단이다. 노동을 통해 존재 가치를 함당

52) 최진영, 위의 책, 17면.

53) 최진영, 같은 곳.

54) 최진영, 위의 책, 45면.

하게 인정받고, 노동을 통해 삶을 개선하며 주체성 확립을 이루고 싶어 하는 ‘나’의 소망이 드러난다. 그러나 ‘나’가 마주하는 현실은 그 소망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나’는 ‘일’에 종속되고, ‘나’에게 ‘일’은 통제 불가능한 것이 된다. “일이 나를 하찮은 존재로 만”드는 주객전도의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즉, ‘나’에게 노동은 자아실현의 수단이 아니다.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고, 억압적인 사회 구조에 순응하게 만드는 제도적 폭력의 도구이다.

단행본의 후반부에는 다음과 같은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다. 이 장면에는 자기 소외를 촉발하는 노동 현장 속에서 고통받는 슬픔을 감추고, 정체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는 ‘나’의 모습이 나타난다.

나는 그저 좋은 세상에서 살고 싶었다.

공장은 야산과 허허벌판 사이에 있었다. 퇴근할 때면 벌판과 벌판 사이의 어두운 길을 한참 걸어 나와야 했다. 버스가 다니는 도로에 닿으면 저 멀리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아련하게 빛나는 인공 불빛을 바라보며 나는 죽은 사람들을 떠올렸다. 그들을 생각하다 나도 모르게 다짐하듯 중얼거리기도 했다.

돈 버는 일이 힘들다고 말할 수는 있어.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

먹고사는 일이 원래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⁵⁵⁾

계간지본에는 “좋은 감정으로 좋은 세상을 말하고 싶었다.”⁵⁶⁾라는 문장이 있었으나 단행본에서는 삭제되었다. 실상 ‘나’의 현실은 비극적이고 ‘나’는 세상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를 주입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또한, 단행본에서는 밑줄 친 부분처럼

55) 최진영, 위의 책, 47면.

56) “나는 그저 좋은 세상에서 살고 싶었다. 좋은 감정으로 좋은 세상을 말하고 싶었다. / 퇴근하는 길, 멀리 모여 제각각으로 빛나는 인공 불빛을 바라보며 나는 가끔 죽은 사람들을 떠올렸다. 그들을 생각하다 나도 모르게 다짐하듯 중얼거리기도 했다.”(최진영, 앞의 책, 2019, 139면)

공장과 퇴근길의 묘사도 부연 서술되었다. 이로써, 비가시적 영역에서 벌거벗은 생명으로 소외된 ‘나’의 현실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며 독자에게 실체감 있게 다가간다. ‘나’의 동선과 시선을 따르는 이 묘사들은 세상의 중심부에서 동떨어진 곳에 자리한 ‘나’의 고립감, 그 위치에서 ‘나’가 느끼는 쓸쓸함, 비슷한 처지의 이들에 대한 연민을 불러일으킨다.

동시에 “어두운 길” 위에서 바라본 불빛을 ‘아련하게 빛난다’고 표현한 대목에서, 자신과 비슷한 상황 속 끝내 죽음에 이른 사람들에게 동질감을 느끼는 ‘나’를 엿볼 수 있다. 그 슬픔이 절제된 언어로 표현됨으로써 문학적 여운이 생긴다. 후술된 장면에서 계간지본에 등장한 감정 표현의 음성 상징어가 삭제된 것도, 이처럼 절제된 감정 표현을 통해 극적 효과를 끌어내기 위한 최진영의 의도로 볼 수 있다.

쉽 없이 움직이던 커다란 기계가 갑자기 멈췄다. 멈춘 채로 뭔가를 토해내는 소리를 냈다. **울컥 울컥 울컥**. 건물 벽에도 기계에도 안전마크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정말 감독을 나왔는지 검사를 받았는지 알 수는 없었다. (중략) 고장 난 기계를 그대로 두고 퇴근한다면 **커께는 밤새 울컥 울컥 울컥 소리를 낼 것이고** 어른들은 책임감 없는 요즘 애들 운운할 것이다.⁵⁷⁾

계간지본에는 기계의 고장을 형상화하기 위해 “울컥”이 사용되었지만 단행본에서는 삭제되었다. 이 표현이 기계의 고장 난 모습에 사용되면, 의인화와 감정이입의 문학적 효과가 생긴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는 그 효과가 ‘나’에게 향해야 할 독자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요인이 된다. 고장 난 기계 앞에 선 ‘나’의 공포,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 자신과 같은 상황을 겪다 죽음에 이른 사람들과의 동일시 등의 문제가 부각되지

57) 단행본에는 취소선 그어진 문장이 삭제된 결과로 반영되었다.(최진영, 위의 책, 139면; 최진영, 앞의 책, 2021, 48면)

않을 위험이 있다. 현실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의 책임을 논할 때, ‘기계 또한 힘들었다’로 화제 초점을 전환하거나 불의의 사고처럼 사안을 축소하고 책임 소재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 것을 떠올릴 수 있다.

단행본에서는 해당 문장들이 삭제됨으로써 그 위험이 줄어들었다. 최진영은 기계에 입혔던 감정의 색채를 지우고 기계를 객관적 사물로서만 서술하는 건조한 문체만 남겨 놓았다. 이로써 ‘나’의 내면에 억눌린 두려움과 슬픔이 표출되는 순간은 유예되고, 그 표출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장면에 이르기까지 ‘나’가 느끼는 감정의 깊이는 점진적으로 더해진다.

어린 ‘나’는 글자 ‘소’를 닮은 모양처럼 “붉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울”⁵⁸⁾ 수 있었지만, 성장한 ‘나’는 그렇게 주저앉아 영영 울지 못한다. “울컥”임을 삼키며 선 채로 눈물을 참아내야 하는 ‘이른 어른’이 된다.

울고 있는 어린이를 계속 바라보면 어린이는 점점 ‘소’라는 글자에 겹쳐졌다. ‘소’를 닮은 어린이는 자라서 열아홉 살이 되었고 혼자 울 때 이제 나는 ‘서’라는 글자와 비슷한 것 같다.⁵⁹⁾

계간지본에서는 ‘시’였던 것이 개작 과정에 ‘서’로 바뀌었다. 자형을 고려하면, 벽(丨)에 기댄 채로 떨어지는 눈물을 한 팔로 애써 훔치며(扌) 울고 있는 사람(亻)의 모습이 연상된다. 눈물을 닦아내는 팔의 움직임이 ‘亻’와 ‘扌’ 사이에 뺀 가로획(一)으로 형상화되었다고 본 것이다. 또한 ‘서’는 ‘서다’라는 동사 어간과 발음이 같고 ‘서다’의 뜻도 기계 앞에 홀로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연상시킨다. ‘시’ 역시 명사 ‘시(詩)’나 ‘시다’⁶⁰⁾라는 형용사 어간과 발음은 같지만, 각 단어의 뜻이 서

58) 최진영, 위의 책, 14면.

59) 최진영, 같은 곳.

60) 형용사 ‘시다’는 ‘맛이 식초나 설익은 살구와 같다’라는 뜻을 지녔다. 이를 서사 맥락과 관련 짓기는 어렵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사 맥락과 닿아 유의미한 연상 작용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서’라는 글자는 “기계 앞에 서 있는 이유”⁶¹⁾를 자문하는 ‘나’의 질문도 연상시킨다. 이 질문의 답을 생각하다 보면 ‘나’가 기대어 울던 벽은 단순히 물리적인 벽이 아니라, 이른 어른으로 마주하게 된 사회구조적인 장벽의 총체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나’의 소외와 그로 인한 고통은 노동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 계급의 격차가 벌어지는 타자와의 관계에서도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야, 알바! 짜증이 가득 묻은 목소리로 손님이 나를 불렀다. 나는 매일 매일 확인했다. 돈을 내는 자의 무례와 경멸을, 수치심까지 깃뚫개는 뻔뻔함을, 더 많은 것을 손에 쥐고서도 불공평이나 역차별이란 단어를 무기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을. 나는 알 만큼은 안다고 생각했고 더 알아야 할 것들이 두려웠다.⁶²⁾

위 인용문은 단행본에만 삽입된 문단이다. 이 장면의 “불공평이나 역차별”은 더 많이 가진 자가 자기 우위를 지키고 타자를 배제하기 위해 그 의미를 왜곡하여 쓰는 언어이다. ‘나’는 이러한 언어의 폭력을 마주하면서, “알 만큼은 안다고 생각했”던 세상이지만, “더 알아야 할 것들이” 남아 있는 듯한 직감에 “두려움”을 느낀다.

「일요일」의 전체 서사는 독자에게, ‘나’가 “더 알아야 했던 것들”이나 소외의 문제가 ‘나’만의 몫은 아니라는 사실을 전달한다. 이는 최진영이 노동으로부터 인간적 소외를 경험하는 또 한 명의 인물로 도우를 설정하고, 개작을 통해 도우의 서사적 비중을 늘려 그의 삶을 계간지본보다 더욱 무게감 있게 그려낸 것으로 확인 가능하다.

‘나’와 도우는 양극화된 사회경제적 계급의 상반된 자리에 위치하여 대

61) 최진영, 앞의 책, 2021, 48면.

62) 최진영, 위의 책, 44면.

비된다. 하지만, 각기 다른 형태의 노동을 하며 “매일 특근과 야근”⁶³⁾을 거듭한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을 보여준다. ‘나’의 노동이 일반적 의미에서의 노동이라면, 도우의 노동은 은유적 의미에서의 노동이다. 도우는 성공한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모와는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가진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노동하듯 치열하게 공부를 한다.

도우의 부모는 사회적 불평등과 계급 담론을 재생산하는 능력주의에 대한 맹목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 도우의 부모가 도우를 양육하는 모습에서 한국 사회의 “부유한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여 명문대에 입학시키는” 모습, “교육이라는 지배 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여 자신들의 성공을 공고히 하고 학력 내지 학벌이 낮은 사람들과 격차를 벌”⁶⁴⁾이는 모습 등을 연상할 수 있다.

도우는 부모에게 “학력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즐겁지 않더라도 참고 공부하는 인내를 최고의 미덕으로 강요받”는다. 개성을 존중받는 환경 속에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인정해주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자신을 길들”이며 삶을 살아낸다.⁶⁵⁾ 즉, 도우는 인간 그 자체로서의 존엄, 인간다운 삶, 온전히 누릴 현재의 행복 등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 부모와 사회가 던져 놓은 인정 투쟁에서 승리으로써 탈출하고자 하는 도우의 삶도 결국 ‘나’의 삶만큼이나 비극적이다.

이처럼 ‘나’와 도우가 경험하는 소외는 그 근원이 다르고 그로 인한 고통의 크기나 무게를 동일한 층위에 놓을 수도 없다. 하지만 각각의 소외가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비극은 하나라는 점에서 같다. 그 비극은 바로 ‘나’가 알게 되는 것이 두렵다고 말했던 “더 알아야 할 것들”에 속하며, 작품

63) 최진영, 위의 책, 19-20면.

64) 김주현, 「능력주의에 대한 반론 - 허구, 지배 그리고 평등 -」, 『법철학연구』 25(1), 한국법철학회, 2022, 39-40면.

65) 이한진, 「능력주의의 한계 극복을 위한 시민교육의 역할」,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9),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3, 614-615면.

의 처음과 마지막 장면에서 반복해 등장하는 “나는 **겹**에 질려 있다.”⁶⁶⁾, “나는 **겹**에 질려 있었다.”⁶⁷⁾, “나는 **겹**이 났다.”⁶⁸⁾라는 문장들 속 ‘겹’의 이유와 닿아 있다. ‘나’는 일요일 밤, 멈춘 기계 앞에서, 휴대폰에 걸려 온 도우의 전화를 바라보다 겹이 난다. 그 겹은 두 사람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죽음’이라는 비극 앞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본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차별과 배제의 논리를 당연시하며, 인간을 계급화하는 폭력을 행하는 사회는 ‘나’와 같이 사회적 안전망 바깥으로 밀려난 존재뿐만 아니라, 도우처럼 안전망 안에 위치한 듯 보이는 존재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일요일」은 미성년자 현장실습생의 죽음과 도우 학교 선배의 죽음(자살), 그들의 삶을 뒤따르고 있는 ‘나’와 도우의 삶을 각각 병렬 배치함으로써, ‘나’와 도우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들에게 가하는 고통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일요일」의 세계가 오직 어두운 그림자로만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니다. 최진영은 그 소외에 맞세워지는 또 하나의 힘도 그려낸다. 세상의 부정함을 ‘말할 수 없는 사람’과 ‘말할 수 있는 사람’의 계층에 각각 놓인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지옥을 살며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타자성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최진영은 서로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서로를 놓지 않으려는 두 사람의 마음을 그 어두운 그림자와 나란히 세운다.

도우가 라면을 먹는 ‘나’를 위해 조용히 단무지를 사서 건네는 장면, 도우가 ‘나’에게 현장 실습이 힘들지 않은지 묻고, 피자과 치킨을 주문해 배달을 온 ‘나’가 조금이라도 먹고 쉬었다 가기를 바라는 장면, 스쿠터를 타고 일을 하러 가는 ‘나’에게 도우가 운전 조심하라는 말을 건네는 장면 등은 1인칭 서술자 ‘나’의 시점에서 바라본 도우의 애절한 표현들이다. 이 장면들은 이전보다 정서적 거리가 멀어졌어도,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는

66) 최진영, 앞의 책, 2021, 9면.

67) 최진영, 위의 책, 47면.

68) 최진영, 위의 책, 49면.

사라지지 않는 서로를 위한 온기가 실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무엇보다 마지막 장면은 인간 소외와 실존적 온기라는 대비되는 두 개념이 팽팽히 대치되어 독자가 두 인물의 비극을 통찰하고 주제 의식을 더욱 심도 있게 이해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유를 알고 싶었다. 내가 지금 이 기계 앞에 서 있는 이유를. 왜냐하면.
나는 일을 하고 싶었다. 저축을 하고 부모님에게 용돈을 주고 싶었다.
차를 사서 그 차에 친구들을 태우고 여행을 다니고 싶었다. 그 모든 걸
서른 살 이전에 다 해내고 싶었다. 주머니 속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액
정에 도우 이름이 떴다. 나는 겁이 났다. 도우가 울고 있을까 봐.⁶⁹⁾

밑줄 친 부분은 개작되면서 삽입된 문단이다. 위 인용문에서뿐만 아니라 ‘나’가 “서른 살 이전”에 이루고 싶은 바를 이야기하는 대목은 소설 중 반부에서도 먼저 등장한 바가 있다. 약간의 표현만 달라졌을 뿐 의미가 동일한 문장이 마지막 장면에 또 등장한 셈이다. 이를 반복해 말하는 ‘나’의 모습은 ‘나’에게 “서른 살 이전”에 이루고 싶은 꿈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독자가 알게 한다. 또한, 그 모습 위에는 서른 살 전에 외국 대학교의 교수가 되어 부모님을 이기겠다고 말한 도우의 모습이 겹쳐진다. ‘나’의 마음속에는 서로 같은 일요일을 보내던 때처럼, 서른 즈음의 미래에는 다시 친구들과 비슷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 그 미래 속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나’가 도우가 울고 있을까 봐 겁이 났던 것은, 마음속으로 빌어온 도우의 평화가 산산이 부서졌을지도 모른다는 예감 때문이다. 자신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지만, 언제나 친구로서 순수하게 ‘나’를 위해준 도우의 안위를 염려하는 것이다. 세상은 두 사람을 각각의 방식으로 소외시키고 죽음의 문턱까지 밀어붙이지만, 두 사람이 민주와 함께 일요일마다 서로의 평

69) 최진영, 위의 책, 48-49면.

화를 벌여온 진심의 무게까지 세상 밖으로 밀어내지는 못한다.

민주와 도우가 성당에 나오지 않아 배신감을 느꼈던 오래전 그날의 ‘나’와는 달리, 현시점의 ‘나’는 그날 자신이 느낀 감정이 배신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⁷⁰⁾ 본 연구가 「일요일」의 서사를 비극적이지만 완전히 비극적이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까닭도, 민주와 도우가 성당에 나오지 않았던 일이나 민주와 도우의 삶이 ‘나’의 삶과 많이 달라진 일이, 조건 없는 우정을 함께 나누던 민주와 도우의 ‘배신’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5. 나가며

본 연구는 최진영의 단편소설 「일요일」의 개작 양상과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계간지 『자음과모음』에 처음 발표되었던 「일요일」은 이후 『일주일』이라는 소설집에 수록되어 재발표되었다. 최진영의 다른 작품들이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고 문학 비평의 장이나 학계의 주목을 받아온 것과 달리, 이 작품은 그러한 대상이 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일요일」이 청소년들을 주인공으로 삼아 세계와의 관계 속에 그들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현실적으로 그려낸 점을 주목했다. 특히 최진영이 개작을 통해, 제도 안팎의 경계에 놓인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삶의 문제들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 시도가 성공적이었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작 양상에 드러난 작가의 의도와 개작을 통해 높아진 서사의 완성도, 향상된 미적 가치 등을 파악함으로써, 이 작품의 가치를 총체적으로 조명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타자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어떻게 ‘나’에게 폭력을 내면화시

70) 최진영, 위의 책, 49면.

키고 ‘나’의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지 살펴보았다. ‘나’를 향한 친척들의 편견 어린 시선, ‘나’의 판단을 왜곡하는 선생님들의 말, 자식이 세상 논리에 순응해 살아갈길 바라는 엄마의 태도 등이 개작을 거치며 선명해졌다. 이를 통해 부당한 노동 환경의 책임을 사회 구조가 아닌 스스로에게 돌리는 ‘나’의 심리 기제는 더욱 개연성을 갖는다. 또한, 단행본에 삽입된 도입부의 “왜냐하면……” 대목은 그 기제의 작동을 가장 응축된 형태로 보여주어, 정체감을 상실한 ‘나’의 좌절과 체념을 보다 비극적으로 전달한다.

3장에서는 ‘나’, 민주, 도우의 순수한 우정이 현실의 세속적 조건들에 의해 정서적 균열을 겪고, 서로의 삶에 놓여 있던 계급적 격차가 가시화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개작 과정에서 세 사람 사이의 정서적 균열이 시작되는 시점이 구체화되고 그 균열의 정서적 진폭을 가장 크게 겪은 ‘나’가 느끼는 감정의 이름도 정교하게 다듬어졌다. 또한, 세 사람이 단 한 번도 같은 반이었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들 사이 계급의 분화가 표상된 것이었음을 암시하고, 새롭게 삽입된 강짜 사건은 도우의 사회적 권력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이미 세 사람의 내면 깊숙이 자리하고 있던 계급적 위계에 대한 인식을 서로에게 재확인시키는 역할을 한다.

4장에서는 계급적 분화에 따른 물리적·정서적 거리감이 가장 컸던 ‘나’와 도우가 겪는 소외의 문제, 그 고통 속에서도 두 사람이 놓지 않는 실존적 온기를 살펴보았다. 단행본에서는 ‘나’가 노동의 세계에서 경험하는 소외감이 ‘나’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서술되고, ‘나’의 고립감과 쓸쓸함 등에 관한 문학적 묘사가 확장되는 방식으로 감정의 깊이가 형상화되었다. 한편, ‘나’의 감정 표현을 절제하기 위해 감정의 음성상징어를 일관되게 삭제하는 개작도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단행본의 결말에는 ‘나’에게 걸려 온 도우의 전화 장면이 삽입되어, 부모와 사회의 억압 속에 소외된 도우의 서사적 역할이 부각된다. 이로써 두 사람이 겪은 인간 소외의 문제, 그 고통 속에서도 서로를 향하는 실존적 온기의 가치가 맞세워진다.

마지막 장면에는 ‘나’가 도우의 전화를 받았는지, ‘나’의 두려움처럼 도

우가 울고 있었는지, ‘나’처럼 도우도 죽음에 내몰린 상황이었는지 등은 서술되어 있지 않다. 이후에 ‘나’와 도우가 각자의 고통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 또한 알 수 없다. 즉, 「일요일」의 서사는 “현재 진행형의 서사, 미결정의 서사”⁷¹⁾이다. 본 연구는 이 열린 결말이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삶의 불평등과 그에 따른 비극의 반복성을, ‘일요일’이란 단어 속 ‘일’과 ‘일’의 반복을 통해 암시한다고 본다.

혹자에게는 이러한 결말이 명쾌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결말을 취함으로써 오히려 「일요일」은 “억눌려 있던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가청 권으로 들어오고,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상을 통해 세계를 비판”⁷²⁾하는 청소년 문학의 역할을 현실적으로 수행한 작품이라는 가치를 갖는다. 이러한 가치는 이 작품에 관한 연구가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이유를 말해준다. 본 연구가 이 작품의 개작 양상과 그 서사적 의미를 밝힌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71) 김성진, 「청소년 소설의 장르적 특징과 문학교육」, 『비평문학』(39), 한국비평문학회, 2011, 79면.

72) 우신영, 「청소년문학 장르의 문학교육적 전유」, 『교육문화연구』 29(4),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23, 333면.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최진영, 「일요일」, 『자음과모음』, 자음과모음, 2019 겨울호(제43호), 123-140면.
_____, 「일요일」, 『일주일』, 자음과모음, 2021.

2. 논문 및 단행본

- 강서희, 「『나는 무늬』에 재현된 청소년 주체의 애도 양상과 교육적 의의 - 별거벗은 생명으로서의 청소년 노동자에 주목하며 -」, 『한국아동문학연구』 49, 한국 아동문학학회, 2024, 5-29면.
- 강진호, 「포즈로서의 문학과 현실로서의 문학 - 『7번국도』의 개작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94), 한국현대소설학회, 2024, 5-35면.
- 고봉준, 「재난의 생명 정치와 연대의 (불)가능성 - 2000년대 한국소설에 나타난 팬데믹 질병과 ‘종말’의 감각」, 『한국문예비평연구』(72),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21, 7-38면.
- 김누리,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해냄, 2020.
- 김미현, 「21세기 한국소설에 나타난 감정 윤리의 동학 - 긍정의 정치학을 중심으로 -」, 『우리말글』 82, 우리말글학회, 2019, 345-374면.
- 김성진, 「청소년 소설의 장르적 특징과 문학교육」, 『비평문학』(39), 한국비평문학회, 2011, 60-83면.
- 김영삼, 「재난서사와 퇴행하는 공동체 - 박서련, 김유담, 최진영의 소설을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24(3),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3, 289-323면.
- 김주현, 「능력주의에 대한 반론 - 허구, 지배 그리고 평등 -」, 『법철학연구』 25(1), 한국법철학회, 2022, 27-52면.
- 김혜선, 「생명권력에 나타난 ‘돌봄’의 정치학 - 2000년대 이후 소설을 중심으로 -」, 『우리말글』 73, 우리말글학회, 2017, 367-397면.
- 서신화, 「2000년대 소설에 나타난 종말론적 세계 인식과 재난 서사: 편혜영과 최진영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3, 1-87면.
- 오세란, 「‘학생’과 ‘노동’으로 고찰한 청소년 정체성 - 청소년소설 『겉에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 『아동청소년문학연구』(31),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22, 265-292면.
- 우신영, 「청소년문학 장르의 문학교육적 전유」, 『교육문화연구』 29(4), 인하대학교 교

- 육연구소, 2023, 325-341면.
- 윤현진, 「청소년문학의 장르와 탈장르 - 성장소설을 넘어서는 ‘독자성’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66, 국어문학회, 2017, 409-440면.
- 은유,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돌베개, 2019.
- 이선우, 「문학서 ‘역주행’ 미디어셀러 분석 - 『구의 증명』과 『모순』을 중심으로」, 『픽션과 논픽션』 6, 픽션과논픽션학회, 2024, 105-138면.
- 이하은, 「바깥의 청소년과 기억의 정치 - 최진영의 『구의 증명』을 중심으로 -」, 『아동청소년문학연구』(38),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25, 403-431면.
- 이한진, 「능력주의의 한계 극복을 위한 시민교육의 역할」,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9),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3, 607-622면.
- 이형영, 「최진영 『해가 지는 곳으로』 공간성 연구 - 한국형 포스트-아포칼립스로서의 특성을 중심으로 -」, 『문화와융합』 44(10), 인문사회예술융합학회, 2022, 909-918면.
- 전국국어교사모임, 『세 가지 열쇠말로 여는 문학 이야기 4』, 해냄에듀, 2025.

3. 전문잡지 및 신문

- 유슬기, 「저도 제가 다음에 쓸 이야기가 궁금해요 작가 최진영 ①」, 『톱클래스』, 조선뉴스프레스, 2025.08., 142-153면.
- 유청희, 「“이런 슬픈 책은 그만 써...추천합니다” 출판 시장 ‘금류’ 바꾼 10·20세대」, 『독서신문』, 2025.02.13.
(<https://www.reader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136>)
- 황지윤, 「‘모순’부터 ‘금류’까지... 1020 덕에 문학 역주행」, 『조선일보』, 2025.01.17.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5/01/17/3P4NNKMNJFGFXOILBHRPQLDX2M/)

<Abstract>

A Study on the Revision Patterns and Significance of Choi Jin-young's "Sunday"

Choi, Ye-seul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vision patterns of Choi Jin-young's short story "Sunday" and to elucidate their significance. Through revision, Choi Jin-young examines from multiple perspectives the problems faced by adolescent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social safety net, while sharply criticizing the ills embedded in the socioeconomic structure of contemporary Korean society.

Based on an analysis of the revision patterns, this study identifies three major narrative implications: the internalization of violence and the imposition of individualized guilt; the emotional rupture caused by class differentiation; and the confrontation between human alienation and existential warmth. In the revised book edition, the mechanisms through which the prejudices and stereotypes of others lead the first-person narrator, "I," to internalize violence and experience distorted guilt are rendered more clearly. The story also depicts with greater subtlety how the pure friendship among "I," Minju, and Dou is fractured by socioeconomic disparities, thereby increasing the emotional distance among the characters. Furthermore, by juxtaposing the alienation experienced by "I" and Dou with the existential warmth that persists between them even amid their suffering, the revised version concentrates the narrative tension in the final scene.

By examining the revision patterns of "Sunday" and their significance, this

study elucidates the enhanced narrative coherence achieved through revision and highlights the social role that the work performs as young adult literature.

Key words: Choi Jin-young, "Sunday," Adolescents, Labor, Revision

투 고 일: 2026년 8월 8일

심 사 일: 2026년 9월 7일

게재확정일: 2026년 9월 10일

수정마감일: 2026년 9월 28일